Issue Brief

2024년 하반기 주요 경제 이슈 점검

미국 대선, 긴축시대 종료, 중국의 과잉생산, 매크로레버리지

삼일PwC경영연구원
August 2024

pwc 삼일회계법인

Contents

1. 2024년 상반기 평가

2. 하반기 주요 경제 이슈 점검

이슈 1	미국 대선
이슈 2	긴축시대 종료
이슈 3	중국의 중장기 성장여력 및 공급과잉
이슈 4	한국의 매크로레버리지

3. 시사점

1. 2024년 상반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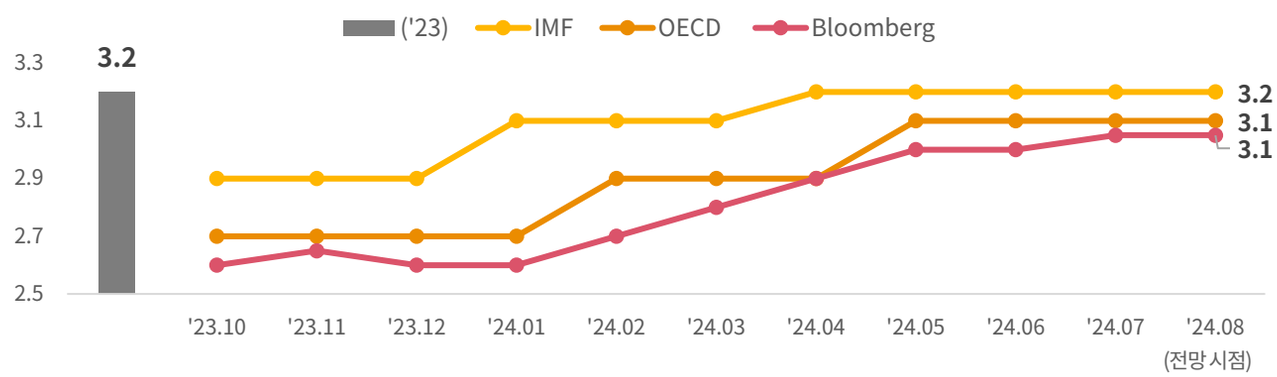
- **전반적인 실적 호조로 2024년 경제전망은 지속 상향 수정 중**
  - 지난 3년간 GDP 성장률이 지속 하향 수정되었던 점과 대비
  - 통상 전망 수정시 실질변화율의 일부만 반영되는 점 고려시, 향후 확정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

-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중국 경기. 이에 힘입어 한국 성장률도 상향 조정**
  - 미국: 고용지표 안정, 소비 및 투자 양호 → '24년 성장률 전망치 큰 폭 상향
  -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은 지속되나, 수출개선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상황
  - EU: 소비 중심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 지정학적 긴장 지속되며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 일본: 생산차질 및 소비부진으로 기존 전망대비 성장폭은 둔화되나, 장기평균 상회하는 성장흐름
  - 한국: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소비 흐름 개선으로 성장률 전망 상향

'24년 GDP 성장률 전망의 변화: '23.10월 vs '24.7월 (IMF)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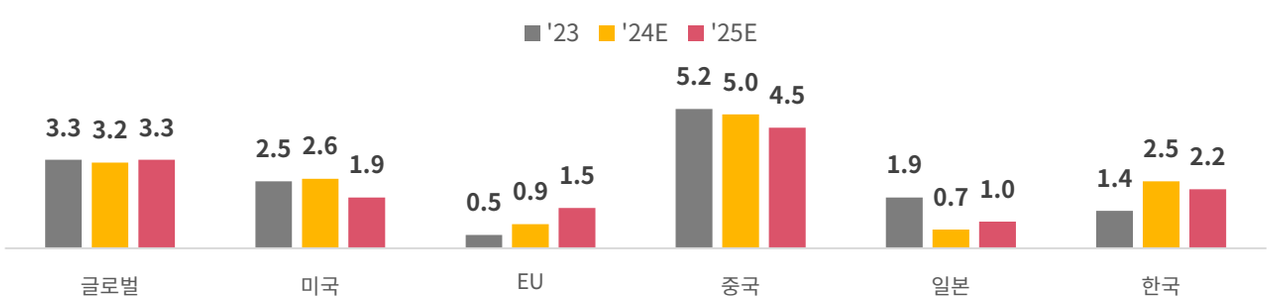
글로벌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2.9 → 3.2	1.5 → 2.6	1.2 → 0.9	4.2 → 5.0	1.0 → 0.7	2.2 → 2.5

'24년 글로벌 성장 전망 변화 (단위: %)



※ IMF, OECD,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국가별 성장률 전망 (단위: %)



※ IMF('24.07),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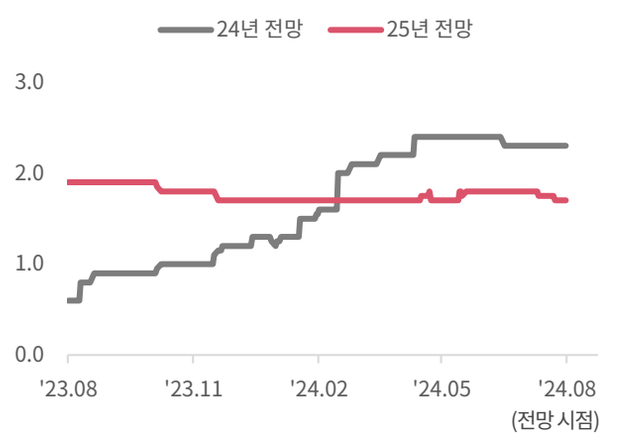
주요국 1 미국: 노 랜딩*에 가까운 소프트 랜딩**으로 순항 중

* 노 랜딩(No landing): 경기 둔화 없이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 **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완만한 경기 둔화

- **[성장률] ’23년 2.5% → ’24년 2.6% 전망, 기존 대비 ’24년 전망치 상향(+1.1%p) (IMF, ’24.07 기준)**
  - 견조한 고용환경에 힘입어 개인소비 양호 + 정부 지원에 따른 리쇼어링 증가로 투자 확대 지속
  - 대규모 이민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 AI 중심 기술 투자로 노동생산성 향상 → 중장기 잠재성장률 상향
- **[실업률] 실업률 수준 양호하나, 기업 이익 둔화에 따른 구인율 하락 추이는 향후 노동시장에 부담 요인**
  - [노동 공급] 핵심연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팬데믹 이전(’15~’19년 평균 62.9%)에 근접하며 공급 원활
  - [노동 수요] 이익 둔화로 신중해지는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향후 노동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내포
- **[물가] 상승률 둔화되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의 압력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다소 지연**
  - 연말까지 2% 중반의 물가상승 지속 후, ’25년에 연준의 장기목표(2%) 수준 진입 전망

GDP 성장률 전망치(’24~’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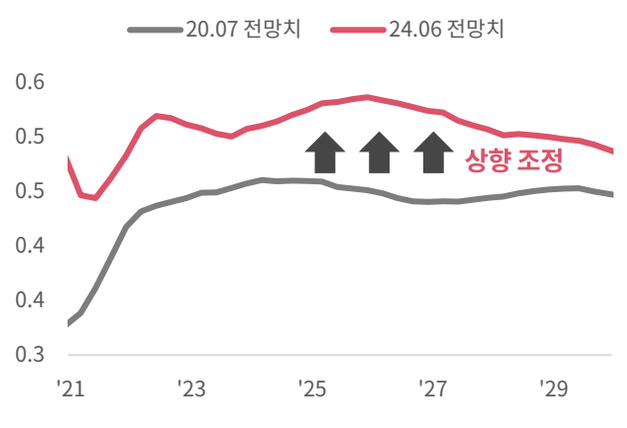
(단위: %)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중장기 성장 트렌드: 잠재성장률_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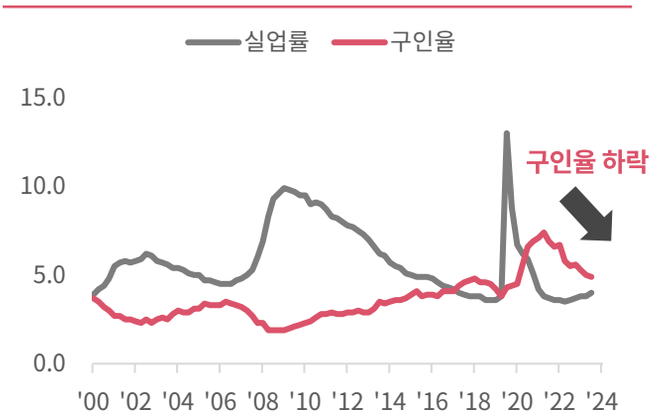
(단위: %)



※ CBO('24.06), 삼일PwC경영연구원

기업 구인율과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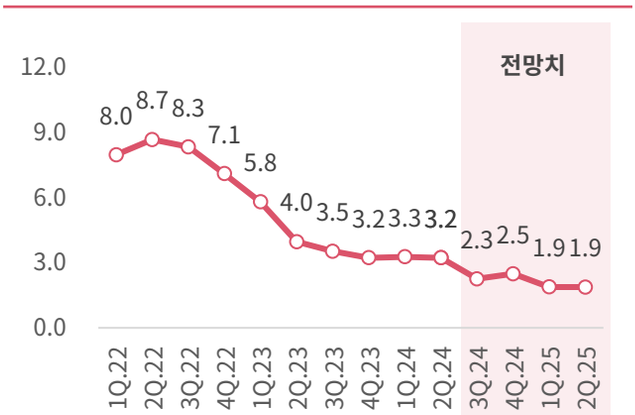
(단위: %)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물가상승률

(단위: %)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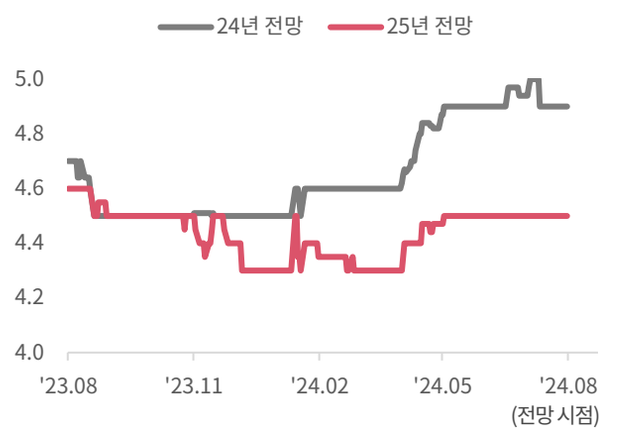
주요국 2 중국: 추세 하락 속 선방

- **[성장률] ’23년 5.2% → ’24년 5.0% 전망, 기존 대비 ’24년 전망치 상향(+0.8%p) (IMF, ’24.07 기준)**
  - 성장동력 약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불구, 수출 개선과 정부 부양책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경기 시현
    - ’24년 광의의 재정적자율(국채발행 포함) 목표치 8.2%로, ’20년 이후 최대 & 전년비 1.2%p 증가
    - 부동산 규제완화, 지준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등 전방위적 정책 시행

- **기존 예상대비 양호한 성장률에도 불구, 중장기 성장률 하향 조정**
  - 성숙기로 접어든 경제 구조, 미-중 무역전쟁 등 고려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또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와 투자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역사적으로 주택시장 부진에서 시작된 경기둔화는 일반적 경기순환에 비해 오래 지속되는 경향

GDP 성장률 전망치(’24~’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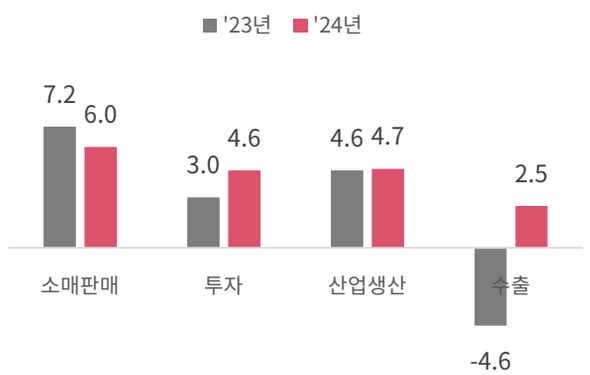
(단위: %)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요소별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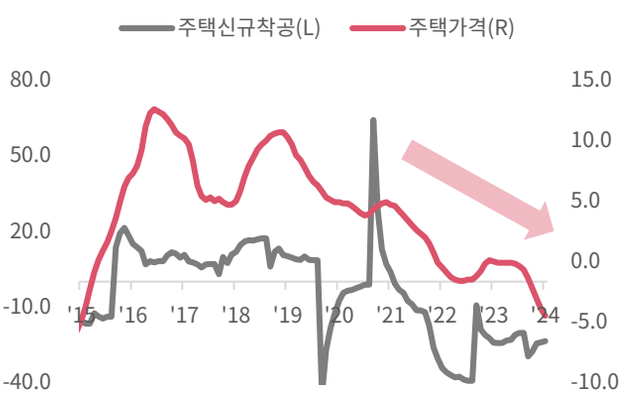
(단위: %)



※ 중국국가통계국, 삼일PwC경영연구원

주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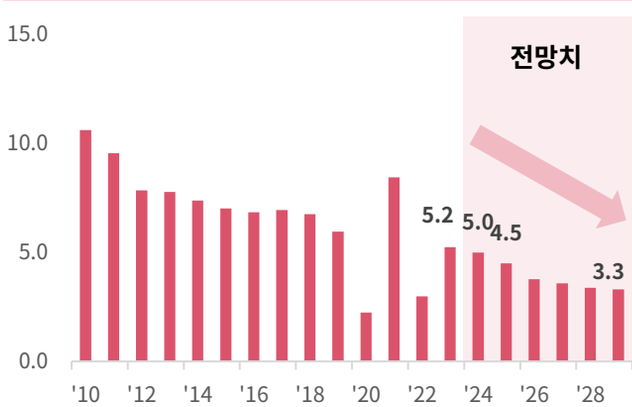
(단위: %)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중장기 성장 트렌드

(단위: %)



※ IMF,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국 3 EU: 지정학적 긴장 속 불안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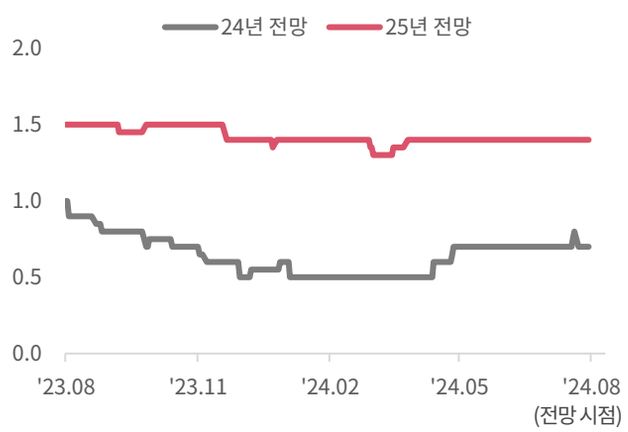
주요국 4 일본: 더디지만 변화 모색 중

- **[EU] ’23년 0.5% → ’24년 0.9% 전망, 기존 대비 ’24년 전망치 하향(-0.3%p) (IMF, ’24.07 기준)**
  - 물가상승률 둔화와 명목 임금상승 → 실질 가계소득 개선으로, 소비 중심의 완만한 경기 개선
  - 서비스업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제조업 부진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
    -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신규 투자 지연, 중국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진 지속

      ※ 제조업PMI는 ’22.7월 이후 25개월 연속 수축 국면이며, 이는 ’00년 이후 최장 기간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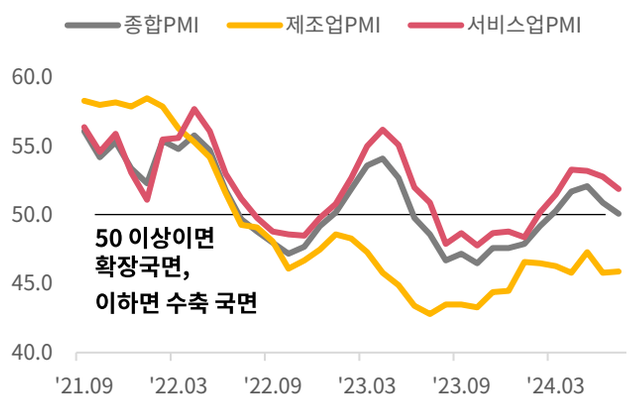
- **[일본] ’23년 1.9% → ’24년 0.7% 전망, 기존 대비 ’24년 전망치 하향(-0.3%p) (IMF, ’24.07 기준)**
  - 상반기 중 발생한 일부 자동차 공장 생산차질 및 소비부진으로 기존 대비 ’24년 전망치 둔화
  - 올해 임금협상에서 33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5.2%) 달성하며, 향후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 점증

EU: GDP 성장률 전망치(’24~’2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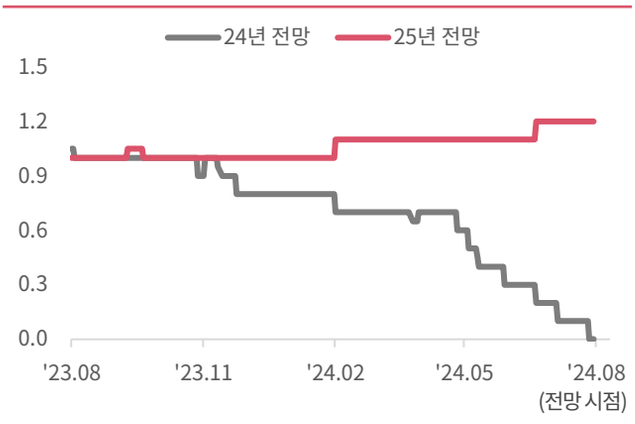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EU: PMI(구매관리자지수) (단위: %,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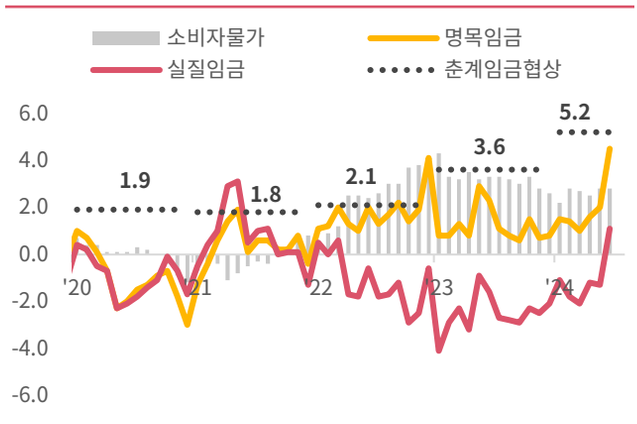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일본: GDP 성장률 전망치(’24~’25년) (단위: %)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일본: 임금 및 소비자물가 (단위: %)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국 5 한국: 아직 수출 부문에만 머물고 있는 온기

- **[성장률] ’23년 1.4% → ’24년 2.5% 전망, 기존 대비 ’24년 전망치 상향(+0.3%p) (IMF, ’24.07 기준)**
  - 수출 회복모멘텀 강화로 연초 전망 대비 양호한 경제 흐름
    - 중국向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요 확대가 이를 메우며 견조한 흐름
  - 건설부문 역성장은 지속.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 상존
- **[물가] 상반기 달러 강세 지속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다소 더디게 진행. 하반기 중 2.5%를 밑돌 것으로 전망**

View Point

✓ **수출의 낙수효과 고려시 향후 수출 증가 → 금융시장 활황 → 내수 회복 가능성 있으나 속도가 문제**

※ 수출이 민간소비에 끼치는 영향은 1분기 후 최대치, 3분기 후까지 지속 (KDI, ’24.05)
’23.4Q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점 고려시,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에 긍정적 영향 기대

국내 GDP 성장률 전망(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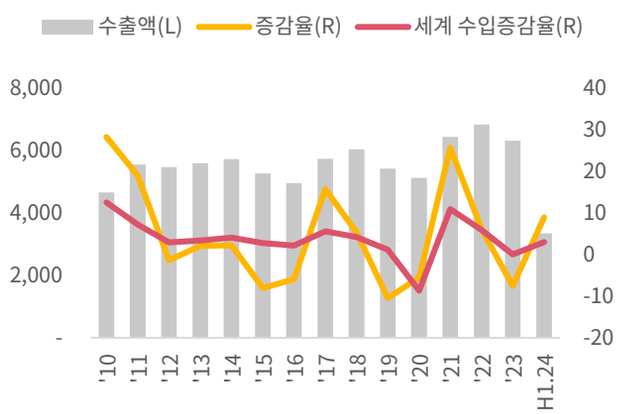
(단위: %,%pt)

	'23	'24E	'25E
GDP	1.4	2.4(+0.3)	2.1(-0.2)
민간소비	1.8	1.4(-0.4)	2.2(-0.1)
설비투자	0.5	0.2(-4.0)	4.3(+0.6)
건설투자	1.3	-0.8(+1.8)	-0.7(+0.3)
재화수출	3.1	6.9(+2.4)	2.9(-0.7)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 주: 괄호는 ’24.2월 전망 대비 변화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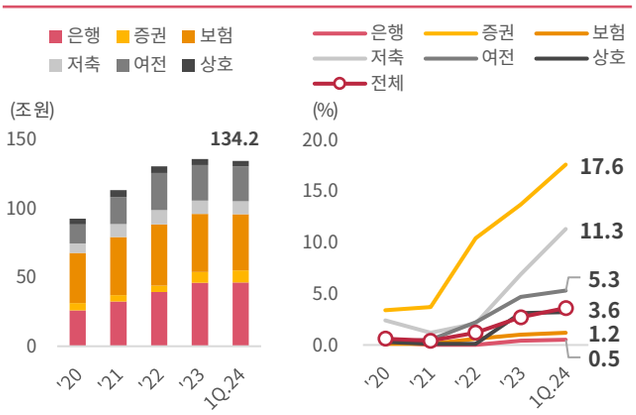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YoY)



※ 한국무역협회, IMF, 삼일PwC경영연구원

부동산 PF 잔액 및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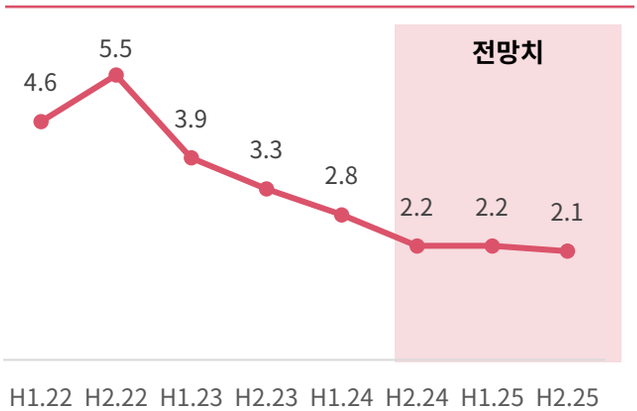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금융감독원, 삼일PwC경영연구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 한국은행('24.08), 삼일PwC경영연구원

2. 하반기 주요 이슈 분석

이슈 1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올해 가장 큰 변수

● **민주당 대통령 후보 교체 이후 해리스 vs. 트럼프의 여론조사 결과가 역전되는 등, 박빙의 승부 전개**

후보 지지율(주요 여론조사 평균치)

민주당 후보 교체 (바이든 → 해리스)

(단위: %, %pt)	7월 17일	7월 24일	7월 31일	8월 7일	8월 19일
트럼프	47.5	47.9	47.9	47.9	46.5
해리스(&바이든)	44.8	45.9	46.1	47.4	50.1
격차: 트럼프-해리스	2.7	2.0	1.8	0.5	-3.6 (역전)

● **후보별 주요 쟁점은 ▶ 고율 관세 도입 ▶ 소득세 및 법인세 개편 ▶ ESG 대응 ▶ 불법 이민 등**

- 미국 우선주의(중국 견제)라는 점에서는 양 진영간 동일한 입장, 그 외의 영역은 극명한 입장차

각 후보별 주요 공약

주요 쟁점	해리스 (역동적 바이든 2.0)	트럼프 (트럼프 2.0)
외교	• (러-우) 우크라이나 지원 큰 변화 없이 지속 • (이-팔) 가자지구 학살 비판하나 친이 정책 지속 • (북한) 대북압박 강화 • (미군) 해외 주둔 지속	• (러-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삭감 • (이-팔) 빠른 종식 약속 (구체적 입장 X) • (북한) 대북압박하되 북-미 회담 추진 • (미군) 해외 주둔 축소/국방비 전가
무역	• 미국 우선주의 • 중국 경계하나 관세의 큰 변화는 없을 것	• 미국 우선 보호 무역주의. FTA 재조정 가능 • 모든 국가 10% 관세,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중국 및 멕시코 차량 200% 관세,
이민	• 근본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본국 상황 개선 주장, 영주권 취득 확대	• 멕시코 장벽,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강경책
세금	• 법인세율 인상(35%) • 고소득층 세율 인상	• 법인세율 인하(15%) • 소득세 전면 폐지 후 관세로 대체
산업	• IRA 유지, CHIPS 유지 • 친환경 정책 유지	• IRA 폐기, CHIPS 비판 • 반 ESG, 화석연료 사용 지지
경제	• Fed 독립성 유지 • 중산층, 저소득근로자, 여성, 소상공인 초점	• 저금리, 약달러 추진
의료	• 오바마케어 업그레이드 • 메디케어 등 기존의 의료 정책 유지	• 오바마케어 폐지/개정 • 민간보험 시장 경쟁 통한 비용 절감

View Point

✓ **아직까지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다소 높으나, 경합주 지지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충분**

✓ **해리스 당선 시, 세대 교체(80대 → 50대) 반영하여 국정 운영의 활력도가 높아질 가능성 존재. 이에 따라 정책노선은 바이든 2.0이나, 역동성 면에서는 오바마 또는 클린턴 시대에 가까울 수 있음**

✓ **외교·무역·경제·산업 정책 등에서 각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선 직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될 것**

Focus 미 대선 경합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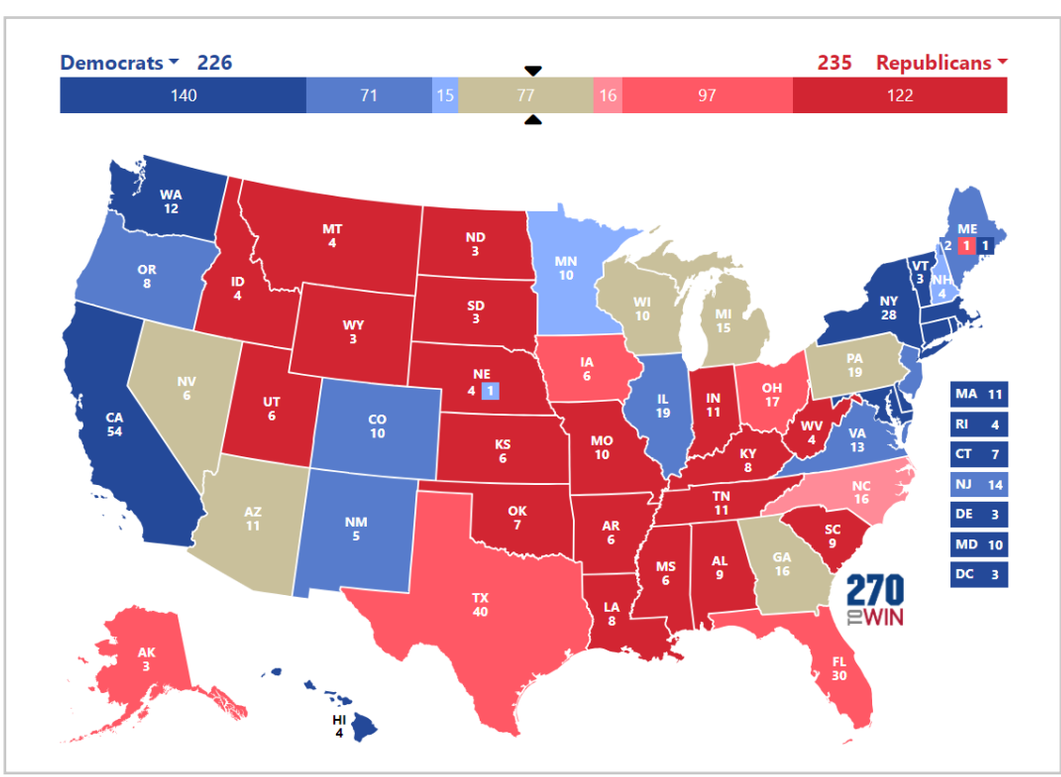
- **양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근소한 만큼 경합주 결과가 중요**
  - 미국 대선의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으로,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
  - 8월 14일 기준 예상되는 선거인단은 공화당 235명, 민주당 226명, 경합 77명.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금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것
    - 경합주 6개(77명): 펜실베니아(19), 조지아(16), 미시간(15), 애리조나(11), 위스콘신(10), 네바다(6)
      ※ '16년 선거는 네바다 제외 모두 공화당, '20년에는 모두 바이든 지지
    - 해리스에게는 경합주 중 인구 많은 펜실베니아, 미시간에서의 승리가 특히 중요
    - 트럼프가 당선되려면 펜실베니아 승리 및 전통적 공화당 성향인 조지아주 굳히기 필요

후보별 당선(270명 확보)에 필요한 경합주 조합

후보	경합주 조합	확보 선거인단 수
트럼프 (235+α)	펜실베니아(19)+조지아(16)	270
	조지아(16)+미시간(15)+애리조나(11)	277
	미시간(15))+애리조나(11)+위스콘신(10)	271
해리스 (226+α)	펜실베니아(19)+조지아(16)+미시간(15)	276
	펜실베니아(19)+조지아(16)+애리조나(11)	272
	조지아(16)+미시간(15)+애리조나(11)+네바다(6)	274

※ 270toWin, 삼일PwC경영연구원

주별 결과 예측 ('24.8.14 기준)



※ 270toWin,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슈 2 긴축시대의 종료: 속도가 문제

- **미국: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작될 것이나, 연준보다 앞서가는 시장의 기대치**
  - 미 연준은 연내 1~2회 (0.25~0.5%p) 인하 암시 vs. IB는 3회(0.75%p) vs. 미 선물시장 내재금리 4회(1%p) 인하 전망
    - 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하 예상하지만,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상황 지속
    - 대규모 이민 유입, 기술 투자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의 근본체력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
      ☞ 중립금리(잠재GDP에 근거한 장기 적정금리)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어,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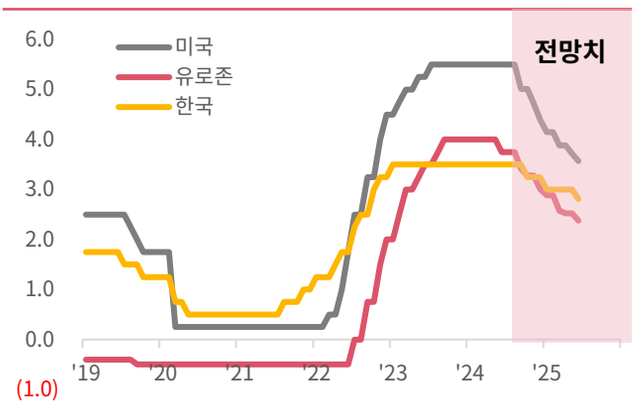
- **EU: '24.6월 기준금리 0.25%p 인하 단행.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유력**
  - ECB는 연말까지 추가 1~2회(0.25~0.5%p) 인하 의사 vs. IB는 3회(0.75%p) 인하 전망
    - '23년 하반기부터 2%대의 인플레이션 구현 중이나, 서비스 부문은 4%대의 물가상승률 기록
      ☞ ECB는 물가안정화 추세 고려하며, 점진적 금리인하 의사를 내비친 상황
    - 또한 안정적 실업률 고려 시, 시장의 기대만큼 공격적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높지 않음

View Point

✓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며 각국 통화정책이 변곡점을 맞이하는 중**
- **다만,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은데, 글로벌 경제가 급격한 하강보다 완만한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고려시, 금리 수준에 대한 과대한 기대는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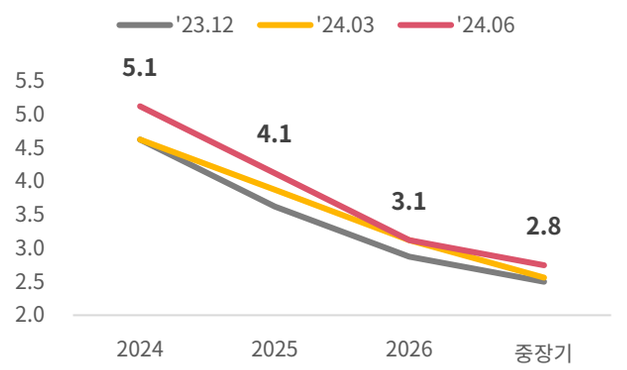
✓ **한국도 인플레이션 안정화 및 미국과 금리차 축소되며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하나,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등으로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단위:%)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미 연준 점도표 중간값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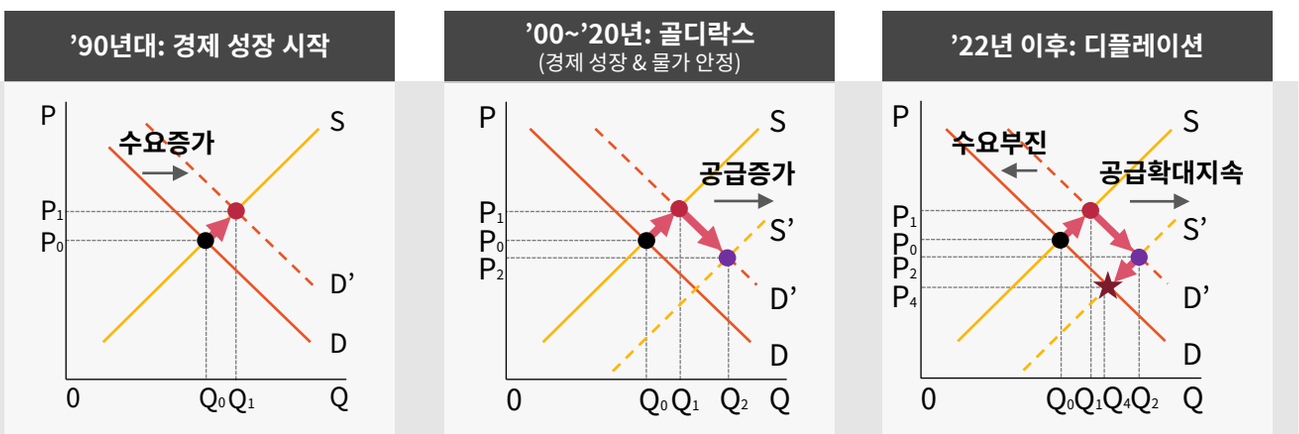
※ FRB,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슈 3 중국의 중장기 성장여력 및 공급과잉

- **중국경제는 유효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나, 정부 정책은 공급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수요] 부동산시장 부진 장기화, 소득증가율 하락으로 내수 부진
    - 소매판매증가율 '23.4Q 8.4% → '24.1Q 4.7% → 2Q 2.7%로 하락세 심화
  - [공급] 정부 육성 전략에 따라 첨단산업이 과잉생산 주도하는 가운데, 전통산업도 구조조정 없이 영위
    - 첨단산업 투자 증가로 3대 新산업(전기차. 태양광 셀, 배터리) 생산이 급증. 해당 제품의 수출은 '19년 대비 각각 600%, 120%, 60% 씩 급증하는 등 초과생산 물량을 해외수출을 통해 소화

-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공급 확대정책은 필연적으로 수출 증가 &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 초래**
  ☞ **향후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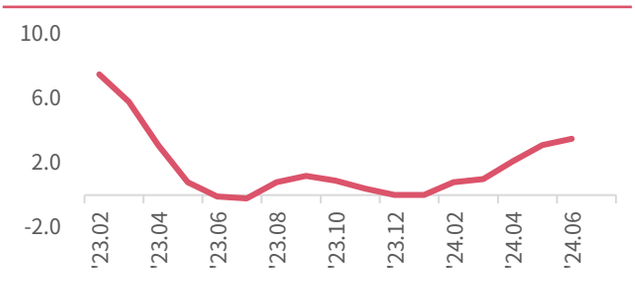
중국 경제 발전 단계



	'90년대: 경제 성장 시작	'00~'20년: 골디락스 (경제 성장 & 물가 안정)	'22년 이후: 디플레이션
공급	낮은 생산성	기술 보급 속 생산 확대	정부주도 생산 확대 지속
수요	폭발적 증가	증가 지속	부진

중국 산업 재고 증가율

(단위: %YoY)



※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23년도 각 제품별 생산물량('19년=100기준)

(단위: %)

※ CEIC, 삼일PwC경영연구원

View Point

- ✓ **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급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지속되기 어려움**
- ✓ **경제 모델 변화 없이는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5% 수준 성장률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 또한 성숙기에 진입한 경제구조 고려시 과거 대비 성장 수준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

이슈 4* 한국의 매크로레버리지**: 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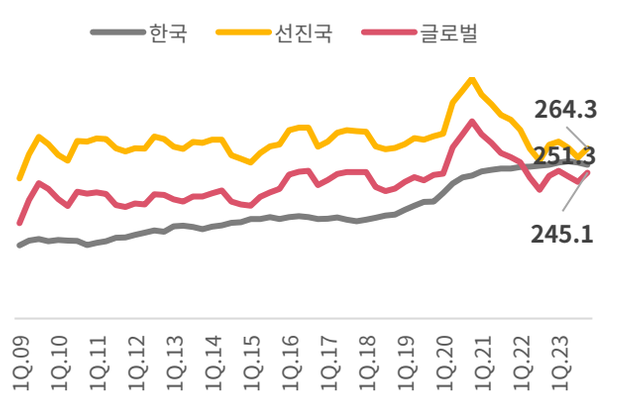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4.6) 참조하여 작성 **매크로레버리지: 가계 · 기업 · 정부 등 거시경제 주체들의 GDP 대비 부채비율

- **팬데믹 이후 글로벌 전반 레버리지 상승 → '22년 이후 디레버리징 진행되어, '20년 이전 수준까지 하락.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부채규모 확대되며 부담 점증**
  - 국내 명목 GDP대비 부채비율은 251%로 글로벌 평균(245%)보다 소폭 높은 수준('23년 말 기준)
  - 차주별로는 기업 114%, 가계 94%, 정부 44% 順. '20년 이후 가계·기업의 부채 증가가 가파름

- **가계대출(주택담보+기타대출)은 '24. 6월 말 기준 1,780조 원이며, 비은행권 위주 연체율 상승 우려**
  - [규모] 정책자금 공급과 주택 구매수요 증가로, '22년 이후 주춤하던 대출이 '24.4월부터 증가
    ※ 연초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5.9조 원, 이 중 10조 원이 정책자금(보금자리, 디딤돌, 버팀목)
  - [차주 구성]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고신용 차주의 대출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
    ※ 대출 비중 변화('23.3Q → '24.1Q): 고신용 차주 77.3% → 78.6%,
  - [건전성] 비은행권&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
    -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연체율. 특히 담보여력이 낮은 기타대출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

GDP 대비 부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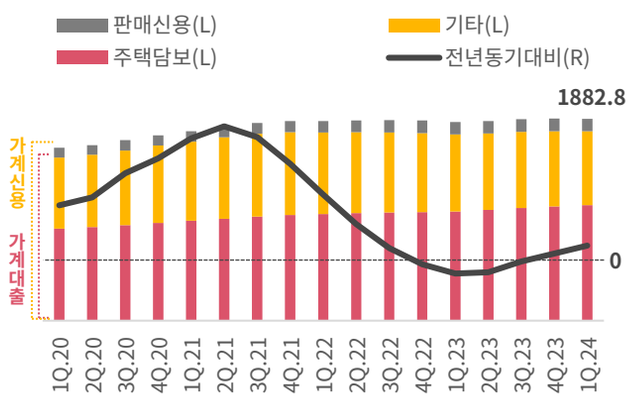
(단위:%)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가계신용 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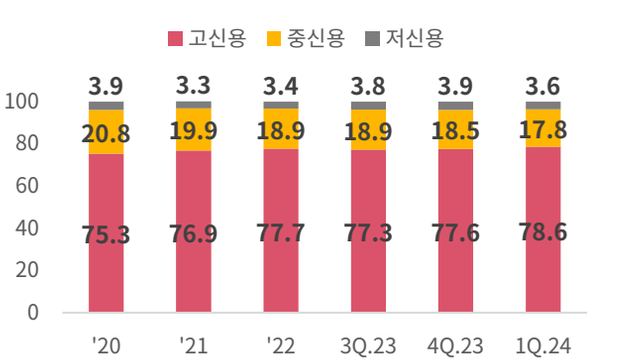
(단위:조원,%)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차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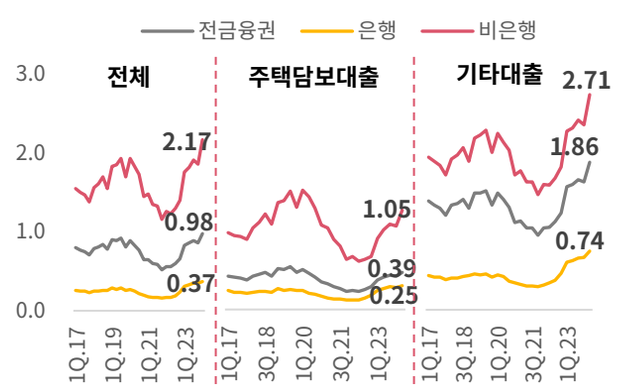
(단위:%)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연체율

(단위: %)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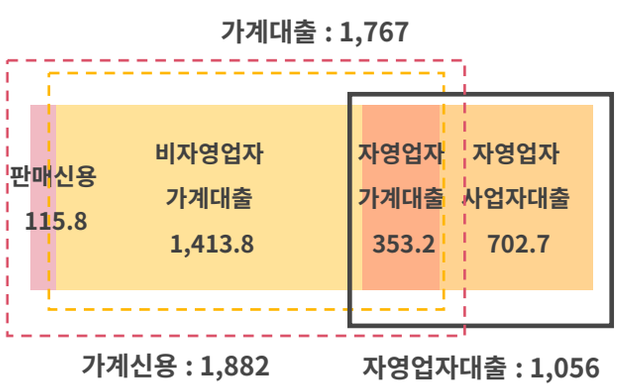
Focus 자영업자 대출 점검

- **자영업자대출은 ’24년 3월 말 기준 1,056조 원 (가계대출 353조 원, 사업자대출 703조 원으로 구성)**
  - 코로나-19 이후 대출규모가 급증하였으나, ’23년부터 정책자금 등이 종료되며 증가율 감소세
    ※ ’20.1Q 대비 ’24.1Q 증감율: 가계대출 +16% vs, 자영업자대출 +51%

-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 중이며, 특히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뚜렷**
  - 자영업자 연체율은 ’22.6월 0.5% → ’24.3월 1.52%로 상승하며, 약 3배 수준 증가
  - 통상적으로 금리상승기에는 연체율이 증가하나, 최근의 연체율 상승추세는 과거대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
  - 취약차주 수 비중(전체 차주 수 대비) ’22.6월 10.7% → ’24.3월 12.7%로 증가. 동기간 가계대출의 취약차주는 변동이 미미(6.3% → 6.4%)한 것과 비교시,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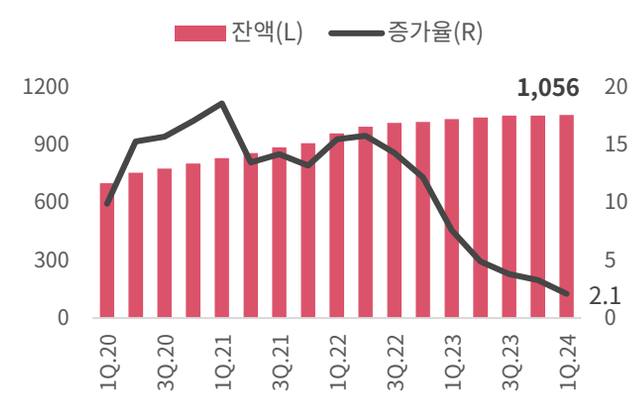
(단위: 조원)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자영업자 대출 잔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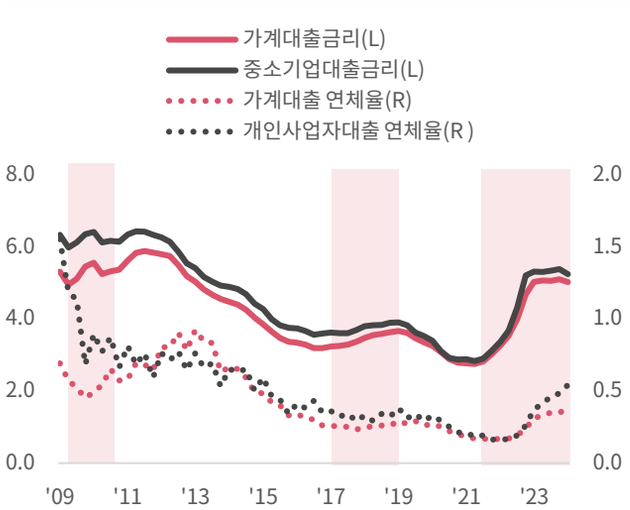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대출금리 및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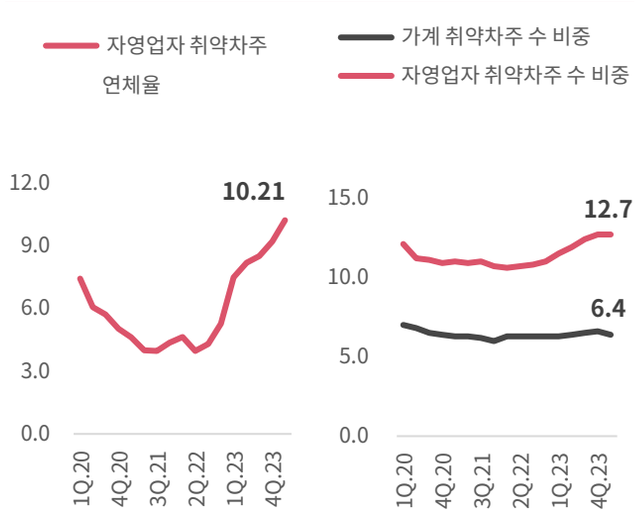
(단위: %)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 음영: 금리인상기

취약차주 연체율 및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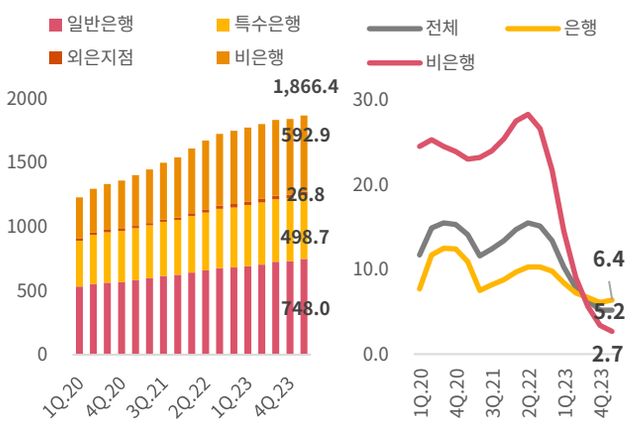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슈 4 한국의 매크로레버리지: 기업

- **기업대출은 ’24년 3월 말 기준 1,886조 원. 대출 증가율은 감소했으나, 비은행권 연체율 상승이 우려**
  - [규모] 대출 기준 강화로 비은행 금융기관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 큰 폭 둔화
    ※ 전년 동기대비 대출 증가율: 은행 6.4% vs 비은행 2.7%, 대기업 11.9% vs 중소기업 3.8%
  - [건전성] ’23년부터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 비은행 금융기관 & 중소기업 중심 건전성 악화
    - 전체 기업대출의 85%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시점
      ※ ’22년 말 대비 ’24.1Q 연체율: 대기업(0.04%→ 0.11%), 중소기업(1.12% → 2.72%)
    -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 · 건설 · 에너지 · 자동차 · 통신의 부채비율이 부담
      + 특히 디스플레이와 건설은 ’21년 이후 부채비율이 더 높아진 상황으로, ’22년부터 진행된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중고에 직면

대출 잔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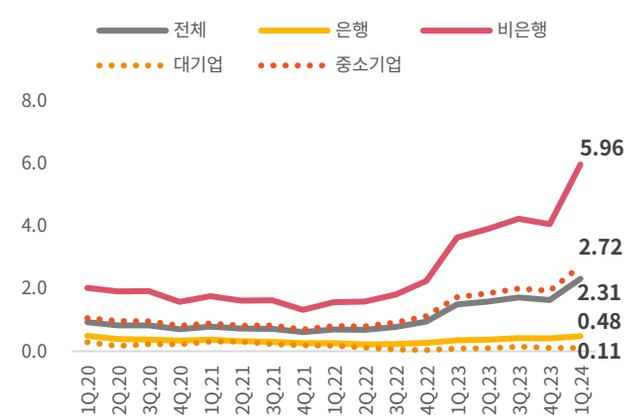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업권, 규모별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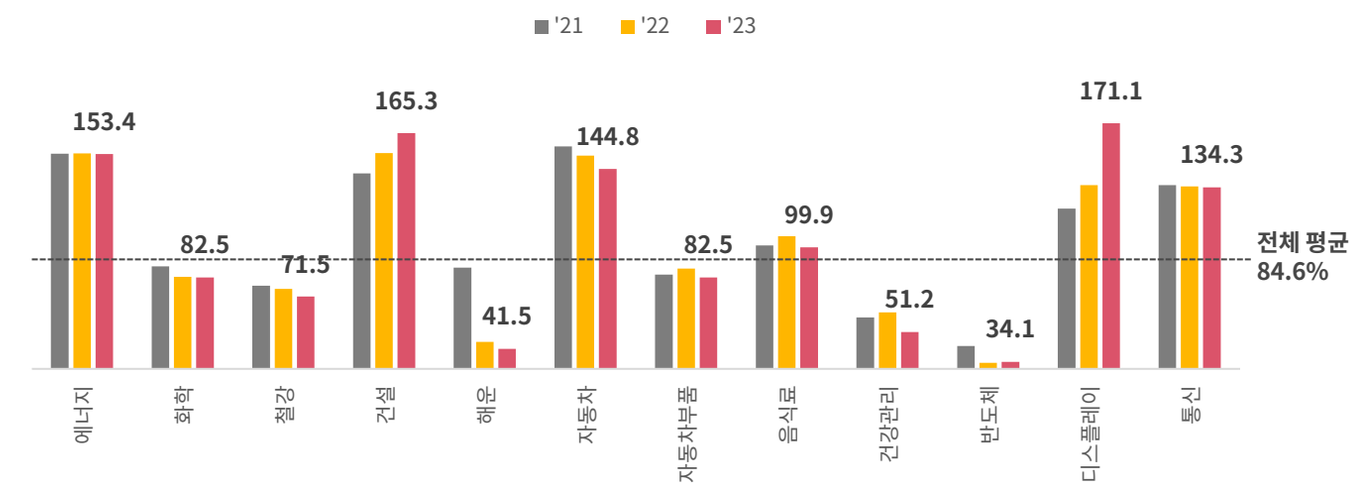
(단위: %)



※ 한국은행, 삼일PwC경영연구원

업종별 부채비율

(단위: %)



※ Quantiwise, 삼일PwC경영연구원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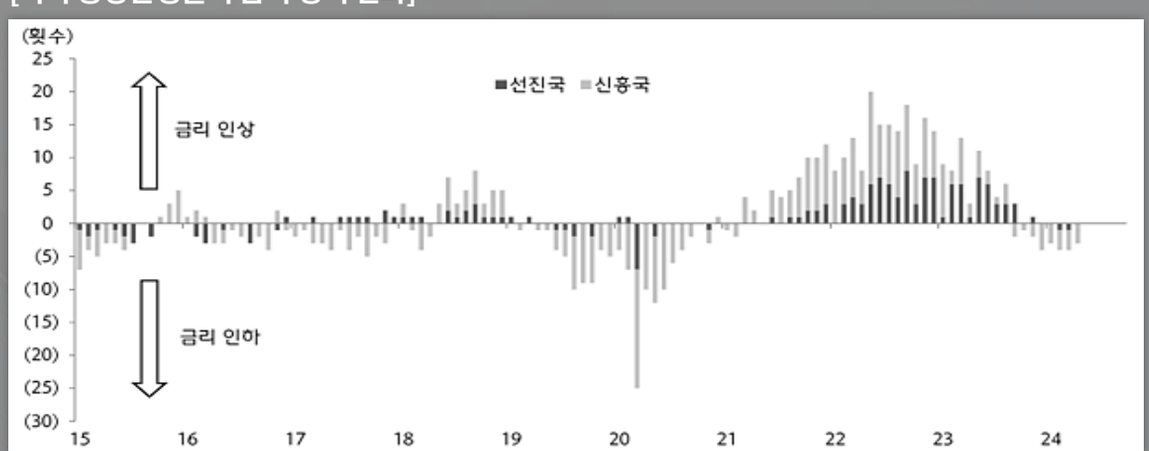
1 글로벌 전체적으로 현재 예상보다 성장률 상향 전망

-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며, 전반적으로 ’24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중
  - 특히 미국·중국 경기가 양호한 상황이며, 이에 힘입어 한국의 성장 전망치도 상승

2 디스인플레이션 + 노동시장 타이트닝 완화 → 긴축시대의 종료

- **인플레이션 둔화:** 연말까지 2% 중반의 물가상승 지속 후, ’25년 2% 대 진입 전망(미국 기준)
  양호한 노동 공급: 이민자 유입 + 청년층 경제활동 증가→ 인건비 및 서비스물가 점진적 하락
- **물가 부담 완화되며,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금리인하 쪽으로 전환**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변화]



※ Thomson Reuters, 하나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3 게임체인저로 작동할 변수로는 미 대선, 중기적으로는 중국의 성장 경로

- 미 대선 후보별 정책 방향성은 미국 우선주의(중국 견제)에서는 동일하나, ▶고율 관세 ▶ESG ▶소득세 및 법인세 ▶이민 ▶외교 등에서는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 최대 변수
- 중국의 정부 주도 & 공급 중심 기존 경제모델 변화 필요
  - 유효수요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 공급 확대는 무역마찰 초래하며, 성장 모델의 한계 봉착

4 한국은 체감경기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변화 속도가 중요

- 글로벌 통화정책 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에 맞추어, 수출 증가가 내수 개선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경기회복 중심 재정 ·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Author Contacts

오 선 주 수석연구위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unjoo.oh@pwc.com

강 수 정 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ujeong.j.kang@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 재 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8W-RP-050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